

경제통상 핫이슈

SK하이닉스 나스닥 입성, '미국 증시 활용' 전략의 신호탄

- **지난 10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하며 265억 달러 (약 40조 원)를 조달, 외국 기업의 미국 IPO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 ADR 공모가는 주당 149달러(총 1억 7,790만 주)로, 기관투자자 주문이 모집 물량의 7배를 상회하며 AI 메모리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평가를 방증
 - 상장 첫날 ADR은 공모가 대비 13.1% 상승한 168.49달러에 마감했으며, 조달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청주 공장 등 국내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 예정
 - 한국 기업의 ADR 상장은 포스코(1994년, NYSE)를 시작으로 통신·금융·전력* 등 기간산업에 집중되어 왔으며 첨단기술·제조 대형주의 미국 증시 진출은 사실상 공백
 - * SK텔레콤, KT, 한국전력,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LG디스플레이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ADR로 상장
- **이번 상장은 한국 대형 반도체 기업 최초의 미국 증시 입성으로,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30년 가까이 축적해 온 '미국 증시 활용' 전략에 한국이 새 축으로 자리 잡는 신호탄으로 평가**
 - TSMC는 1994년 대만 증시 상장 3년 만인 1997년 NYSE에 ADR을 상장했으며, 초기 전체 주식의 2~3% 수준이던 ADR 물량을 약 20%까지 확대하며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
 - TSMC 상장과 더불어 파운드리 UMC(NYSE), 후공정 ASE테크놀로지(NYSE), 팹리스 하이맥스·실리콘모션(나스닥) 등 설계-제조-후공정의 핵심 단계가 모두 미국 증시에 진출
 - 미국 상장은 대만 기업들에 글로벌 자본 조달력과 빅테크 고객·투자자와의 상시 접점, 국제 신인도를 제공하며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
- **SK하이닉스 미국 상장의 실익은 시장 지배력·실적 우위에도 낮았던 기업가치의 재평가로, 향후 자사주 매입을 통한 ADR 물량 확대와 지수 편입이 재평가를 이어갈 동력으로 주목됨**
 - 미국에 제출된 F-6 신고서상 ADR 예탁 한도가 발행주식의 25%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TSMC 사례와 같이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미국을 사실상 제2의 홈시장으로 활용할 가능성
 - 향후 나스닥100 등 지수 편입을 전망할 때, 편입 비중은 ADR 발행량(전체 주식의 약 2.5%) 기준이므로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나 ADR 프리미엄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평가
-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자금 조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자본시장 활용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미국 주주 기반 확대는 기업가치 재평가와 함께 반도체 리쇼어링 압박 국면에서 우호적 이해관계자 형성과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대미 투자 추진 기업일수록 ADR 상장의 전략적 가치가 큼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빅테크 AI 투자 확대 지속...2027년 1조2천억 달러 전망

- 13일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아마존·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스페이스X가 AI 컴퓨팅 수요와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에 대응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가 2027년 1조2천억 달러, 2028년 1조4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원문 링크 : [MarketWatch\(7/13\), Meta and Amazon are leading a trillion-dollar Big Tech spending spree](#)

美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5% 상승...전월 대비 둔화

- 14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5월 4.2%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0.4% 하락해 6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

※ 원문 링크 : [WSJ\(7/14\), Inflation Slowed to 3.5% in June, as Americans Got a Break From Gasoline Prices](#)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AI 하드웨어 경쟁 격화

- 10일 애플은 오픈AI와 전 애플 직원 2명이 제품 설계·제조·공급망 관련 영업비밀을 AI 기기 개발에 활용했다며 제소, 양사의 관계는 협력에서 경쟁 구도로 전환

※ 원문 링크 : [Reuters\(7/10\), Apple sues OpenAI, two former employees for trade secrets theft](#)

美 강제노동 301조 관세 공청회 종료...각국·업계 우려 표명

- 7~9일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중국·일본·EU 등 60개 경제권에 10~12.5% 추가관세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각국 정부와 업계는 공급망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일괄관세 대신 선별 적용과 면제를 촉구

※ 원문 링크 : [USTR\(7/7~9\), Section 301 Forced Labor Import Ban Hearing Transcripts](#)

엔비디아, 中 우회수출 차단 위해 아시아 판매처 절반 이상 축소

- 14일 FT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승인 고객 명단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며 실사와 검증을 강화

※ 원문 링크 : [Financial Times\(7/14\), Nvidia halves Asia buyer list in China chip crackdown](#)

뉴스 큐레이션

지역·산업 뉴스

美, 한국 조선사 전투함 건조 역량 정보 요청...한미 군함 협력 본격화

- 8일 美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역량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보내면서 약 1,600조 원 규모의 미국 신규 함정 시장에 국내 조선업계의 진출 기대 확산

※ 원문 링크 : [동아일보\(7/9\)](#)

도요타, 텍사스에 36억 달러 투자...생산라인 일부 미국 이전

- 6일 도요타는 36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2030년부터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중형 픽업트럭 타코마의 생산 일부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원문 링크 : [Reuters\(7/6\)](#), [Toyota to build \\$3.6 billion Texas plant, shift some truck production from Mexico](#)

캘리포니아, 첫 전기차 구매자에 최대 3,500달러 리베이트 지원

- 13일 캘리포니아주는 첫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차 구매 시 최대 3,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75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이후 둔화된 전기차 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로 해석

※ 원문 링크 : [Reuters\(7/13\)](#), [California offering \\$3,500 EV rebates to first-time buyers](#)

LG엔솔, 美 GM 합작공장서 ESS용 LFP 배터리 본격 양산

- 7일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는 테네시주 공장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 양산 시작을 밝혔으며, 북미 ESS 생산 확대를 가속할 계획

※ 원문 링크 : [파이낸셜뉴스\(7/8\)](#)

삼성전자, 美 ADR 상장 검토설...회사 측은 공식 부인

- 14일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성공적인 미국 상장 이후 투자은행들과 ADR 발행을 초기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삼성전자는 관련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인

※ 원문 링크 : [Bloomberg\(7/14\)](#), [Samsung Electronics Weighs US ADR Listing](#)

보고서 돌아보기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 계약 및 분쟁 관리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2026.6.30.)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美 행정부는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체 법적 수단을 병행 활용해 고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세율·적용 품목이 단기간 내 빈번히 바뀌어 기업 부담이 확대됨**
 - 관세 변동에 따른 기업 간 계약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주요 조항을 점검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세 변동에 대비한 특약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
- **(기존 계약) 거래조건, 불가항력, 가격 조정·재협상, 관세 환급금 귀속, 분쟁해결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충합의서를 통해 추가 관세 부담과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화**
 - (① 거래조건) 거래조건 조항이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등 다른 조항과 충돌할 경우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항 간 적용 우선순위와 해석 원칙 점검
 - (② 불가항력) 계약서상 관세조치·법령변경 등이 불가항력 또는 이행 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③ 가격 조정·재협상) 관세는 수입 시 부과되는 조세이고, 부가금은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로 청구되는 대금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관세 부담을 부가금 형태로 전가할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有
 - (④ 분쟁 해결) 분쟁 시 신속 판단을 위해 소송 외에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삽입
- **(신규 계약) 관세율 변동 기준, 비용 부담 방식, 통지·입증자료 요건, 재협상·해지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관세 특약을 반영하여 계약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거래조건(인코텀즈)의 명시만으로는 관세 변동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격 조정 조항, 불가항력 조항 등을 계약에 반영
 - 그 외 ▲사정변경·계약해지·재협상 조항, ▲원산지·품목분류 관련 조항, ▲분쟁 해결 절차의 단계화 등을 통해 정밀한 관세 분쟁 대응 전략 마련
- **특히, 관세 분쟁은 장기 공급망 관계, 기업 기밀 보호 등 무역·관세 분야의 복잡한 쟁점이 결합되므로, 소송보다 협상·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
 - 조정은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어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 단기간 내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 가능
 - 중재는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처분을 통해 신속한 권리 보전이 가능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비공개성·전문성·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실적 비용 부담도 모색할 필요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텍사스 여름 캠프의 '깜짝 할인'이 남긴 숙제

많은 학생들이 기다려온,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길고 긴 여름방학 시즌이 도래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는 모든 부모의 영원한 숙제다. 우리 부부도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 정보를 수집하며 고민하던 중, 아이들이 속한 지역 교육구(ISD)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교육구가 직접 운영하는 여름 캠프의 잔여석을 20% 깜짝 할인(Flash Sale)한다는 안내였다. 그러나 정작 내 시선을 끈 것은 메일 초반부에 적힌 단호한 문구였다. “플래시 세일 코드는 이미 구매한 캠프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Flash sale codes are not retroactive to already purchased camps).”



김창희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Visiting Scholar,
Texas Christian University
Neeley School of Business)

이 세부 조항을 보는 순간, 몇 달 전부터 학교의 교육 방향을 믿고 일찍이 등록을 마친 학부모들의 깊은 아쉬움과 탄식이 전해지는 듯했다. 미리 결제한 이들의 속상함을 뒤로하고, 이번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교육구)의 관점에서 상황을 짚어보자. 교육구 입장에서는 강사를 섭외하고 야심 차게 프로그램을 짜놓았으나, 예상치 못한 등록 미달로 비용 보전이 시급했을 것이다. 모집 마감에 임박하자 교육지책으로 ‘플래시 세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 터다. 하지만 눈앞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이 단기 처방이,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할 학부모들과의 신뢰 관계와 향후 수요 예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 차별적 가격 정책은 유통·서비스업에서 미래 수요를 파괴하는 잠재적 리스크의 압축판과 같다.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의 만족도는 절대적 가격뿐만 아니라 타인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공정성(Price Fairness)’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항공권이나 호텔처럼 마감 직전 가격을 낮추는 ‘라스트 미닛 덤핑(Last-minute discounting)’이 시장에서 용인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격의 유동성과 익명성을 전제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공공 교육구가 운영하는 캠프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학부모 커뮤니티는 지역 기반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녀의 재학 기간 동안 수년간 반복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관계 중심형 시장’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다수 과목을 대상으로 마감 할인을 단행하며 초기 구매자를 배제하는 정책은 조기 등록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주기 쉽다. “미리 신뢰를 보낸 고객이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기관이 공들여 쌓아야 할 신뢰 자산에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소비자들에게 정반대의 경제학적 ‘학습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경영학에서 공급망과 수요를 관리할 때 쓰는 전략적 개념 중 ‘지연(Postponement) 전략’이 있다. 기업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종 의사결정이나 제품 차별화 시점을 미루는 기법인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잘못된 가격 정책과 결합하면 ‘소비자 측면의 구매 연기(Consumer Postponement)’로 발현된다. 올해 이 상황을 경험한 학부모들은 향후 시즌에 일찍 등록할 유인을 잃어버린다. “어차피 처음엔 제값을 받다가 막판에 미달하면 또 깜짝 세일을 할 테니, 서둘러 등록하지 말고 관망하자”며 의도적으로 구매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당장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단기 처방이 되려 내년도 조기 등록률을 떨어뜨리고 수요 예측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소비자 구매 연기 현상으로 브랜드 자산에 타격을 입은 사례는 패션 업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론칭 초기 세련된 기본 아이템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콘크리트 팬덤을 구축했던 몇몇 글로벌 의류 업체들은, 이후 판매 진척에 따라 상시적인 세일과 막판 마감 덤핑을 반복하는 가격 정책을 펼쳤다. 결과는 대중의 학습이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브랜드는 제값 주고 사면 바보, 어차피 몇 주만 기다리면 무조건 할인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신제품이 나와도 정상 가격에는 지갑을 열지 않고 세일 기간까지 구매를 미루는 ‘지연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조기 판매율은 처참해졌고, 브랜드는 가격 주도권을 상실한 채 상시 할인 브랜드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공공 교육구가 자체 여름 캠프라는 수익성 결합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을 운영하는 순간, 이들은 행정 주체를 넘어 시장의 원리를 고려해야 하는 ‘비즈니스 플레이어’가 된다. 그렇기에 마케팅 전략 역시 한층 더 정교했어야 했다. 만약 미달된 정원을 채워 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면, 대놓고 가격을 깎는 직접 할인 외에 기존 고객의 저항감을 최소화하는 ‘우회적 가치 제안(Indirect Value Bundling)’을 고려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석 등록 시 가을 학기 방과 후 프로그램 크레딧 제공”이나 “친구 추천 시 동반 혜택” 등 가치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기존 등록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공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플래시 세일이 실제로 학부모들의 대규모 이탈이나 참여율 저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단기 정원 충족이라는 눈앞의 성과와 장기적 커뮤니티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과제인지는 분명히 보여준다. 새로운 비즈니스적 시도를 이어가는 많은 기관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 ‘고객 가치와 가격 정책의 정교함’이 지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기대한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7월 1일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ISM Manufacturing PMI)	53.3	54.0	54.0
↳ 6월 미국의 제조업 PMI는 53.3으로 하락했으며, 응답자들은 관세 및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위험을 지적				
7월 2일	6월 실업률(Unemployment Rate)	4.2%	4.3%	4.3%
↳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2%로 감소했으며, 이는 5월의 4.3%에서 하락한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				
7월 15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MoM)	-0.3%	0.0%	0.6%
↳ 6월 미국의 PPI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며, 이란 종전 MOU 체결에 따른 유가 급락이 크게 기여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미국 증시는 AI 인프라 투자 기대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되며 상승폭이 제한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에 따라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

구분	07.14	06.30	2W(% ,bp)	06.16	1M(% ,bp)	25.12.31	YTD(% ,bp)
S&P500	7,543.6	7,499.4	+0.59	7,511.4	+0.43	6,845.5	+10.20
국채 2년	4.19	4.14	+5.40	4.05	+14.60	3.47	+72.40
국채 10년	4.58	4.42	+16.00	4.43	+15.40	4.15	+42.9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경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함에 따라 공급 우려가 확산되어 글로벌 3대 유종이 일제히 급등

구분	07.14	06.30	2W(%)	06.16	1M(%)	25.12.31	YTD(%)
Dubai	83.20	68.29	+21.83	73.19	+13.68	61.59	+35.09
Brent	84.73	72.92	+16.20	78.96	+7.31	60.85	+39.24
WTI	79.34	69.50	+14.16	76.05	+4.33	57.42	+38.17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소비자물가지수 둔화로 미 연준 긴축 압력이 완화되고, 한국은행 금리인상 전망과 반도체 상장 자금 유입 기대감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하락

구분	07.14	06.30	2W(%)	06.16	1M(%)	25.12.31	YTD(%)
USD/KRW	1,488.3	1,547.5	-3.83	1,509.3	-1.39	1,440.6	+3.31
USD/JPY	162.2	162.6	-0.23	160.5	+1.09	156.7	+3.53
USD/CNH	6.772	6.791	-0.28	6.757	+0.22	6.976	-2.93
EUR/USD	1.142	1.142	+0.02	1.161	-1.59	1.175	-2.74
달러인덱스	100.92	101.19	-0.27	99.54	+1.39	98.32	+2.64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2026년도 무역의 날 포상 신청 안내

- 무역의 날은 1964년 우리나라가 1억 달러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수출의 날'을 시초로 하여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했음
 -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 1조 달러를 기록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5일을 정부 기념일인 '무역의 날'로 지정
-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무역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유공자 및 기업에게 정부가 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 신청기간 : 2026년 7월 20일(월)~8월 7일(금) * 한국시간 기준
 - 신청방법 : 무역의 날 사무국 홈페이지(<http://award.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 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 포상 신청 바로가기 클릭